

— Sat-125 —

운동 후 측복통과 함께 발생한 급성신부전 7예의 임상상

신윤미, 권순길, 김혜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서론 : 운동 후 발생하는 급성신부전에는 횡문근 용해증과 patchy renal vasoconstriction이 알려져 있다. Ishikawa 등이 운동후 심한 측복통과 함께 발생한 급성신부전 증례를 종합하여 신장내 혈관수축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급성신부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소수 증례 보고가 있었으나, 여러 증례의 임상상에 대한 보고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저자들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운동 후 측복통과 함께 발생한 급성신부전 환자 7명에서 증상 및 검사소견, 복부전산화 단층촬영소견을 종합하여 임상상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 성별은 7명 모두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30.6세 이었다. 모든 환자는 병원 내원 전에 다른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내원 전 환자들이 했던 운동의 종류로는 단거리 전력질주 3명, 그 외는 무리한 체력훈련, 500미터 높이의 등산, 여행 후 헬스클럽에서 운동, 2시간정도 스킨스쿠버 후 10시간 운전 등 이었다. 진통제는 5명에서 경구, 1명에서 근육의 경력이 있었다. 증상은 7명중 5명이 전형적인 양측 측복통을 보였고, 1명은 요통, 1명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37.5℃ 이상의 체온상승은 6명에서 관찰되었다. 생화학적 검사에서 creatinine phosphokinase의 현저한 상승은 관찰되지 않았고 혈청 요산치는 1명에서 1.6mg/dL로 저하되어 있었다. 내원시 최초 크레아티닌 수치는 2-5.5 mg/dl 사이이었으며, 상승 최고치는 8.8 mg/dl이었고, 이 환자는 응급혈액투석을 시행 받았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소견은 최초 시행한 영상에서 부채꼴 모양의 음영감소를 보이던 부위가 6-24시간 후 촬영한 지연영상에서 다시 조영증가를 보이는 patchy renal vasoconstriction의 전형적인 소견이 관찰되었다. 입원기간은 4일에서 17일이었으며, 퇴원시 크레아티닌 수치는 모두 정상화되었다.

결론 : 운동 후 측복통과 함께 발생한 급성 신부전의 경우 비교적 좋은 예후를 보이는 patch renal vasoconstriction과의 감별이 필요하며, 확인을 위해 지연 영상을 포함한 신장 전산화 단층촬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Sat-126 —

지속성 보행성 복막투석환자에서 발생한 담즙성 복막염(Bile Peritonitis)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학교실

이선영, 박취라, 김은아, 이충환, 장창수, 방병욱, 김덕영, 임희정, 송준호, 김문재

서론 : 담즙성 복막염은 대부분 수술 또는 외상에 의한 담도의 손상으로 담즙이 누출되어 발생한다.

드물게 경피적 담낭배액술과 관련된 담즙성 복막염, 총담관낭의 파열, 심한 담낭염 또는 담낭농종, 체장암 환자에서 담즙성 복막염이 보고되기도 했다. 저자들은 지속성 보행성 복막투석을 하는 환자에서 발생한 담즙성 복막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 당뇨병성 신증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으로 4년전부터 지속성 보행성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60세 남자 환자가 내원 3일전부터 지속된 복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응급실 내원 당시 배액된 투석액이 담즙색을 띄었으며 채액검사상 백혈구 180/mm³ (중성구 86%), RBC 0/mm³, total bilirubin 0.1 mg/dl이었다. 혈액 화학 검사상 Total bilirubin 1.5 mg/dl, direct bilirubin 1.4 mg/dl, AST/ALT 367/156 IU/L, ALP 346 IU/L, r-GTP 177 IU/L 이었고 혈액내 CA 19-9은 1544.0 U/ml, 배액된 담즙내 CA19-9은 58.9 U/ml, 투석액내의 CA 19-9 >22000.00 U/ml로 CA 19-9 수치는 모두 상승되어 있었다.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한 결과 담낭은 직경 12cm의 심한 담낭수종을 보였고 일부 담낭벽의 비후가 관찰되어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암이 의심되었다. 혈관 내 항생제 주입을 시작하였고 빈번한 복막액 교환으로 투석액의 담즙색은 없어졌으나 환자는 혈압이 저하되면서 폐혈증이 의심되어 응급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시행하였다. 그 후 담즙성 복막염은 호전되었으나 폐혈증이 호전되지 않아 환자는 사망하였다.